

공공요금에 고용 한파... 서민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시름

물가 8개월째 5%대 상승... '고물가' 여전한 기준금리 3.50%... 7개월 연속 인상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당분간 5%대 ↑ 전기요금 오르고 교통비 인상도 현실로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놓인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5%대를 웃도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됐다.

역대급 혼풍이 풀렸던 고용시장도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빙하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취업 문은 좁아지는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 오르며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7.5%)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시절보다도 오름폭이 벌어졌다.

월별로 비교해도 고물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5%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오름폭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은행(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만 하다.

장바구니 부담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사상 처음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셈이다.

정부의 긴축 통화 정책에도 물가 상승률 둔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5% 내외의 고물가가 이어진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4분기 대비 9.5%로 198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월 307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요금 부담은 4022원(부가세 전액기반요금 미포함)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됐다.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대구는 지난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울산 또한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올린 4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상 흐름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부터 가정용을 비롯

한 상하수도 요금도 올렸다.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곳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설 연휴도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밀가루, 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2차 가공식품 물가도 뛰는 도미노 현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호황기를 누렸던 고용시장에도 흑한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81만6000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87.7% 줄면서 '고용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은(9만명)과 KDI(한국개발연구원·8만명)의 전망은 더 절망적이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 9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증가한 일자리의 86%(44만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노동시장의 미래로 꼽히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0.7% 증가한 사이 36시간 미만 단



기 취업자는 5.0% 늘었다. 특히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가 6.5%나 증가했다. 고령층 중심의 재정 일자리가 늘고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올해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 고용 시장이 침체에 빠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 제조업 분야 고용난이 심화될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면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채용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청년 스타트업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일자리'에 기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기재부 2차관은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 집행할 예정"이라며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 반IT'를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 집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정금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 시간과 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순천농협, 2023년 '순천 배' 베트남 첫 수출

순천시, 순천농협,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인 최근 순천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순천 배 베트남 수출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이기성 소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이기복 부본부장, 순천시지부 조상명 지부장,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 김미영 경제상임이사,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김도순 대표이사, 배 공선 출하회 김성호 회장 및 정병원 감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순천 배는 베트남 호치민 도매시장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산 배가 품질, 맛 등에서 우수하여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아 앞으로도 수출

거래량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재 조합장은 "올해 첫 배 수출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순천 과일(단감, 배, 키위 등)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출농산물 출하능가와 함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에 순천 배 수출은 동남아시아(대만,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에 279톤, 761백만원 수출하였다.

2023년에는 350톤 수출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금차 수출되는 순천 배는 물량 16톤으로 수출대행업무는 (주)농협프레쉬(대표 이나미)가 수행한다. 순천=김승호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입자 절반은 3040... '학세권' 찾는다

매입자 46.4%, 3040... 자녀 통학 고려

3040세대가 아파트 시장의 주 구매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녀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28만 539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12만 998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입자 비율로 살펴보면 46.4%로 절반에 가깝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3개 단지는 도보권에 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1위 '갑천2트리플시티 엘리트(11월 분양, 99.27대 1)'는 반경 1km내에 원신홍초, 원신홍중, 대전체육고교 등이 몰려있다. 2

위는 양정자이더샵SK뷰(10월 분양 58.88대 1)로 단지에서 도보 10분 내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3위 강동헤리티지자이(12월 분양, 53.99대 1)은 서울신명초등학교와 신명중학교가 단지로부터 300m 떨어져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요자들일수록 단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는 장점도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지 인근에 학

교가 위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월세 대기수요도 많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수요자들도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기 쉽다.

올해 1분기에도 초·중·고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1146세대 중 77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구월서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 500m 이내에 있다.

롯데건설은 내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에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한다. 1180세대 중 67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에 교문초, 인창유치원, 인창초 등이 위치해 있다. 정승호기자

LG그램, 초경량·대화면 신제품 출시... 첫 올레드 적용

프리미엄 디자인 'LG 그램 스타일' 첫선



LG전자가 초경량·대화면 프리미엄 노트북 'LG 그램(gram)'의 2023년형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디자인 'LG 그램 스타일' ▲성능과 휴대성이 향상된 'LG 그램' 등 2가지 제품군이다.

우선 LG그램 스타일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제품군으로, 그램 최초로 OLED(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출시 제품은 16형과 14형 등 2종으로, 16

형 기준 16대 10 화면비의 WQHD+(3200×2000)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OLED의 장점인 압도적인 명암비와 블랙 표현이 자연스럽다. 제품 외관에는 빛의 각도나 보는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색이 변하는 오토 화이트 색상과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Gorilla® Glass) 소재를 적용했다.

LG그램도 성능과 휴대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신제품은 인텔의 최신 13세대 프로세서

와 최신 저전력 메모리, 엔비디아(NVIDIA)의 고성능 노트북용 외장 그래픽카드(GeForce RTX™ 3050 Laptop GPU)를 탑재했다. 또 최대 5와트(W) 출력의 스마트 랩톱과 입체음향 기술 돌비애티모스(Dolby Atmos)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충전 어댑터의 부피와 무게는 전작 대비 각각 46%, 24%가량 낮춰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다.

출시 제품은 16형과 17형 등 2종으로, 16대 10 화면비의 WQXGA(2560×1600)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한편 국내 출하가는 i5-16GB·256GB·OS 탑재 기준으로 ▲LG 그램 스타일 16 274만원 ▲LG 그램 스타일 14 249만원 ▲LG 그램 16 244만원 ▲LG 그램 17 259만원이다. LG전자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그램 신제품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이밖에 최신 프로세서 등을 탑재한 다양한 LG 그램 신제품(17·16·15·14형)과 투인원(2 in 1) 노트북 LG 그램 360(16/14형)을 비롯해 포터블 모니터 '그램 +view' 신제품 등을 함께 선보인다. 서선욱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터치 일체형 OLED 개발



회사 측은 스마트폰 OLED에 적용해왔던 터치 일체형 OLED 기술을 중형 노트북용 OLED로 확대 적용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내달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갤럭시 북 시리즈 일부 모델에 처음으로 사용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 세계 최초로 터치 일체형 OLED 기술, 'OCTA(On Cell Touch AMOLED)'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패널 내부에 터치 센서를 형성해, 필름(TSP·터치 스크린 패널) 부착 방식 대신 두께가 얇고 가볍다. 이슬비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대면적' 터치 일체형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